

## 8 기획-국제캠 기숙사 점검



국제캠 기숙사 가구에서는 끈적하고 노란 얼룩이 묻어나온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누수와 하수구 역류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학생 제보)

# 국제캠 기숙사 시설 개선 필요 제2기숙사 3년간 개선 계획 중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 기숙사는 객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제2기숙사와 우정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학기 기숙사 시설 만족도와 관련한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신문은 국제캠 기숙사 시설 현황을 짚어봤다.

### 낙후된 기숙사 시설 개선 필요

우리신문은 이번학기 입사 기간에 제2기숙사와 우정원 사생들의 제보를 받아 기숙사 시설 낙후 현황을 파악했다. 제보 내용 중 제2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호실 내 가구 상태였다. 호실 내 가구 대부분은 지난 2008년 제2기숙사 개관 당시 마련된 것으로 현재는 노후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제2기숙사 사생 A 씨는 “입사 후 책상과 의자를 멀티슈루 닦던 중 끈적하고 노란 얼룩이 계속해서 묻어 나왔다”며 “사감실에 문의할까 했으나 제보자의 의자뿐 아니라 룸메이트의 의자, 다른 방의 의자들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 들어서 포기했다”고 전했다.

호실 내 화장실 시설의 상태 불량

또한 다수 언급됐다. 노랗게 변색된 변기 커버와 샤워기 교체 요청을 했다는 제2기숙사 사생 B 씨는 “샤워기는 교체됐으나 변기 커버는 재고가 없어 3월 말에 교체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신고 당일부터 기숙사에 거주할 생각이었는데 한 달 가량 이런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라는 게 어이가 없고 공중화장실도 이 정도로 심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는 문제가 됐던 화장실 비품이 교체된 상황이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엘리베이터 고장 또한 잦으며 외벽 갈라짐으로 인한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동 흡수층 엘리베이터는 멈춤과 간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우정원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물 연식이 오래된 탓에 수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호실마다 시설 상태가 극명하게 갈려 낙후한 호실에 배정된 사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우정원 입사 초기였던 지난 2월, 한 호실에서 화장실 천장 누수와 하수구 역류가 발생했다. 해당 호실에 배정된 우정원 사생 C 씨는 “4층 내

다수 호실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입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역류하고, 심지어 하루에 두 번씩 이러한 걸 보고 심각하다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층별로 가구나 분유기나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같은 가격을 내고 입사했다고 생각하니 조금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 건물 연식과 빠듯한 예산이 원인

올해로 제2기숙사 건물은 약 16년 차, 우정원 건물은 약 26년 차다. 두 기숙사 측은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건물 자체 연식이 오래된 탓에 운영 방식 개선에 의한 기숙사비 대비 학생 만족감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제2기숙사는 연간 기숙사비 수입의 약 60%를 대출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 제2기숙사의 기숙사비가 타 기숙사 대비 높은 금액임에도 시설 개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이유다.

지난 2013년 제2기숙사는 민자 기숙사에서 공공기숙사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운영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대학교는 은행 대출을 받아 제2기숙사를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에 투자금을 상환했다. 이후 높은 이율의 은행 대출을 저이율의 한국사학진흥재단 대출로 변환했으나, 아직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원리금 잔액이 약 330억 원 정도 남아있다.

이에 지난 2020~2022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실 사태가 발생해 대규모 적자까지 더해졌다. 특히 2020~2021학년도에는 기숙사 수입이 약 40% 이상 감소해 시설물 보수 목적의 비용을 적립하지 못했다. 제2기숙사 측은 “원리금 상환분을 제하면 현재의 기숙사비로도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며 “향후 몇 년간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재정 상황을 밝혔다.

우정원의 경우 직영기숙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없다. 다만 리모델링에는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데, 우정원 역시 코로나19 당시 적자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정원 측은 “지난 리모델링에서도 예산 문제로 환경 개선을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호실 간 시설 차이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숙사 문제 해결에는 2~5층

리모델링 진행이 필수적이다”며 “교내 유관부서 측에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제2기숙사 단계적 개선 계획 중 우정원도 노후 호실 순차적 정비 계획

그럼에도 국제캠 내 두 기숙사 모두 시설 정비를 계획 중이다. 제2기숙사는 운영이 정상화된 올해부터 집기 비품의 단계적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호실의 자전면 교체 및 고층부(남여동 총 5개 층) 매트리스 교체가 확정됐다. 이어 ▲2024년 중층부 매트리스 교체 및 호실 내 욕실 수납장 교체 ▲2024~2025년 외벽 방수 공사 ▲2025년 저층부 매트리스 교체 및 호실 신발장 교체 ▲2025~2028년 책상/옷장 세트 및 침대 프레임 교체 ▲2024~2026년 엘리베이터 교체가 계획돼 있으나, 예산 사정상 기간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우정원 역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전체 리모델링에 앞서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배관 정비 ▲호실 잠금장치 개선(전자 도어락 교체) ▲장판 미설치 호실 데코타일 시공 등 노후 호실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최희섭 행정정부총장은 “시설개보수에 대한 총당금 재원이 없고, 그 와중에 원리금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기숙사비 말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방중 기숙사 대관 요청이나 임대 매장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수립중이다”고 말했다.